

보도시점 2026. 6. 10.(수) 배포 즉시

**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실태조사는  
경쟁입찰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기관이  
선정되었으며, 그간 심의 관행을 토대로  
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 
것입니다.**

## 1. 관련 기사

- ☐ 6. 10.(수) 매일경제, “노동계 싱크탱크가 배달기사 실태조사 … 편향성 논란 불거져”

## 2. 설명 내용

- ☐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“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위한 실태조사”는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수행한 연구용역임
  - 경쟁입찰 후 응찰한 기관에 대한 외부위원 평가를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
  - 또한, 해당 조사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, 플랫폼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음
- ☐ 한편,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, 자료 공개에 대한 노·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임
  - 이는 과거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실태조사 자료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중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와 같은 취지임
- 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송유나 (044-202-7526)
	근로기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승철 (044-202-7555)

